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 하자르시기 매장유구 출토유물에 보이는 세계수 형상에 관한 검토

이지은* · 브도브첸코프 Ye.V.**

〈목 차〉

- I. 머리말
- II. 돈강 유역의 하자르 문화
- III. 유적 및 유물 설명
- IV. 세계수 관념
- V. 맺음말

국문요약

세계수 형상과 관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라시아 초원지역에 분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의 하자르 분묘유적 중 하나인 카스트르스키(Kastyrsky) 제 VI 고분군 제 2호분에서 출자형 문양을 기본 모티브로 하는 골제함이 출토되었다. 골제함에는 출자형으로 도식화된 나무와 새가 표현되어 있고, 나무는 상하단의 문양대와 연결되어 있어, 천상-지상-지하라는 세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 관념과 연관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더욱이 피장자가 여성이라는 점, 대퇴부 골제함과 상감유리구슬과 철제원판이 배치, 골제함에 새겨진 세계수라는 문양은 이 분묘의 주체가 상징성을 가지는 존재이자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계수와 여성의 조합은 해당 지역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 지역에서 최소한 기원전 1세기부터는 세계수 관념이 있었으며, 9세기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수와 관련된 전통이 이어져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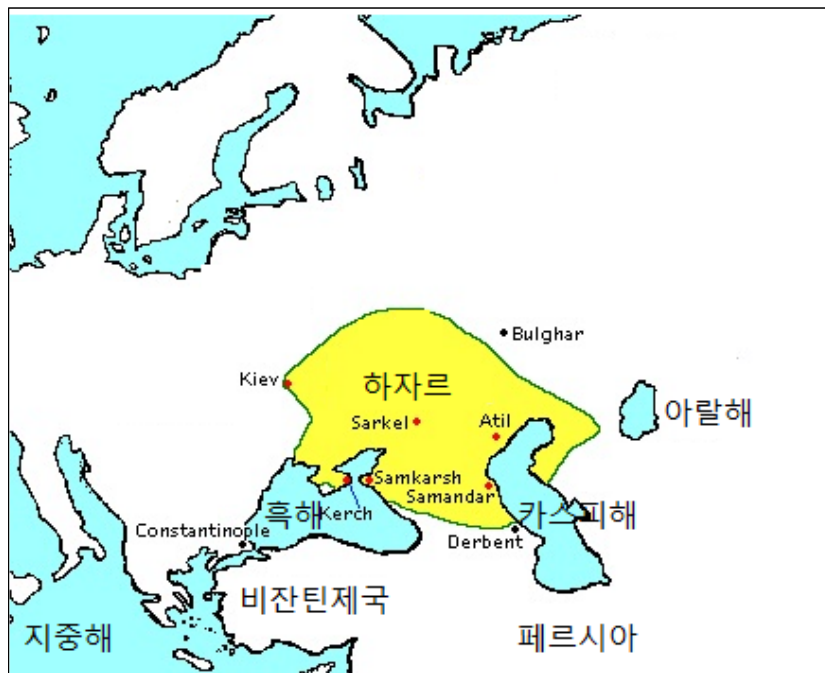
*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전담교수

** 러시아 Southern Federal University 교수

주제어 :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 하자르, 매장유구, 카스트르스키 고분,
코바코보 고분, 호홀라치 고분, 우스트-라빈스크 고분, 세계수, 골제함,
사슴문양, 산양문양, 새문양, 제의, 상징

I. 머리말

기원후 7세기초부터 10세기 중엽까지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서 흑해 북부 카프카스(Caucasus)지역, 드네프르강 유역을 지나 키예프에는 이르는 동남유럽 스텝지구에는 하자르(Khazar)를 선두로 하는 하자르 칸국(汗國)¹⁾이라고 불렀던 강력한 정치연합체가 존재하였다. 하자르 칸국은 카스피해와 카프카스산맥이라는 당시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경제적, 정치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페르시아제국, 비잔틴제국, 기타 유라시아 다양한 유목민의 문물을 접하고 상당히 발달된 국가를 형성하였다. 하자르칸국의 형성은 중세 초기 동유럽의 많은 민족과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²⁾



도 1. 하자르 권역

1) 칸국(Khanate) 또는 카간국(Khaganate)은 투르크-몽골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로, 칸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적 독립체를 말한다. 이 형태의 국가들은 대개 유라시아 대초원 지역에서 존재하였다. 칸국은 유목민, 반유목민의 다양한 민족 집단이 포함된 정치체로, 구성원의 많은 부분이 정착생활을 하였다.

2) Кияшко А.В. и др. Археология Нижнего Дона, Ростов н/Д, 2013, С.25

하자르와 하자르 한국에 대해서는 아랍사료와 비잔틴, 그리고 고대러시아 성립에 관한 문헌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사료³⁾에 보이는 ‘돌궐가살부(突厥可薩部)’ 용어에서처럼 동양문화권에도 알려져 있다. 중국사료에서 ‘돌궐가살부(突厥可薩部)’의 ‘可薩(ka-sa)’이 ‘하자르(Khazars)’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하자르는 흉노의 쇠퇴 이후 수, 당, 그리고 우리나라 고구려와 교섭을 하였던 돌궐의 한 부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자르는 근동지역과 동유럽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자르를 통해 중세 동유럽권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에 걸쳐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 그리고 전달시킨 하자르의 문화에 대해서 국내학계에서는 거의 소개되지 못한 상태이다.⁴⁾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하자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돈강유역에 위치한 하자르 매장 문화에 대해 개관하고,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추적해볼 가치가 있는 신라금관의 모티브인 세계수 형상과 동일한 문양을 가진 하자르 고분 출토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돈강 유역 하자르 문화

고고학계에서는 하자르 문화를 살토보 마야츠크(Saltovo- Mayactkaya) 문화라고 일컫고 있다.⁵⁾ 이 명칭은 1900년 돈네츠크강 오른쪽 하안에 위치한 베르스니 살토프(Verkhniy Saltov) 마을에서 발견된 취락과 고분군에서 ‘살토프(Saltov)’, 그리고 1906년 조사된 마야츠크(Mayatck) 취락과 고분에서 유래한

3) 『隨書 北狄傳』, 『舊唐書 西域傳』, 『新唐書 西域傳 下』

4) 이희수, 『카스피해 문화를 일군 하자르 왕국(630~965)의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중동문제연구』 제 9권 2호, 2010, 27~51쪽.

단편적으로, 2008.09.23. ‘1000년전 사라진 비운의 제국 ‘하자르 왕국’ 유적 찾아냈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에 간략하게 소개

『스키타이 황금문명展』 도록에는 7세기 후반에 불가르와 하자르가 독립된 정권을 세웠다는 단 한 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스키타이 황금문명展』, 2011, 203쪽.

5) Шрамко Б. А., Древности Северского Донца. Харьков : Изд-во Харьковского ун-т, 1962.

Плетнева С.А. Очерки хазар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М. 1999. С.7

다. 이렇듯 살토보 마야츠크 문화는 20세기 초 새로운 형태의 유적과 유물의 발견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목문화라고 할 수 있으나, 취락, 성곽, 도시 등의 정착생활과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경문화, 반농반유목문화도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유물상에 있어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돈강(Don River) 유역 중세사에서 하자르 시기(Khazar Epoch)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돈강 하류역에는 사르켈(Sarkel) 성곽유적, 프라보베레즈노예 치블란스코예(Pravoberexhnoe Tcmlyanskoe) 취락, 세미카라코르스카야(Semikarakorskaya) 성곽유적, 소콜로프스키(Sokolovsky)의 대형고분과 같은 중요한 하자르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취락에 비해 고분은 비교적 적게 조사·연구되었고, 취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고분, 분묘유적이 발견되어 조사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대부분의 돈강유역 유적이 불가-돈강 운하건설, 돈강유역(또는 돈강 지류)에 댐 건설 등에 따른 구제발굴에서 석축 구조물이 있는 취락이나 주거지가 먼저 발견되는 것과도 관련이 되며, 하자르 묘제 가운데 대형봉분을 가지지 않는 묘제가 드물다는 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형봉분이 소실되거나, 1950-60년대 소련의 국가정책상 불가강, 돈강유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토지개혁과 농업집단지화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토지개간 작업이 이루어져 고분의 봉분이 많이 훼손된 것과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

그러나 고분 및 분묘유적에서는 당시 생활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무구류, 장신구류, 제기 등이 출토되고, 삶의 공간과는 구분되는 구조물(매장유구)과 피장자, 그리고 동물뼈 매납 양상 등을 통해 당시의 세계관, 특히 사후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분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신라 금관과 동일한 모티프의 유물 역시, 분묘 출토유물의 문양이니 만큼, 살펴볼 가치가 있다.

먼저, 돈강유역 하자르 묘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자르 묘제, 특히 돈강유역의 하자르 묘제는 크게 봉분의 유무와 묘도의 유무에 따라 크게 카타콤묘, 무봉분 토광묘, 봉분 토광묘, 화장묘로 4가지로 분류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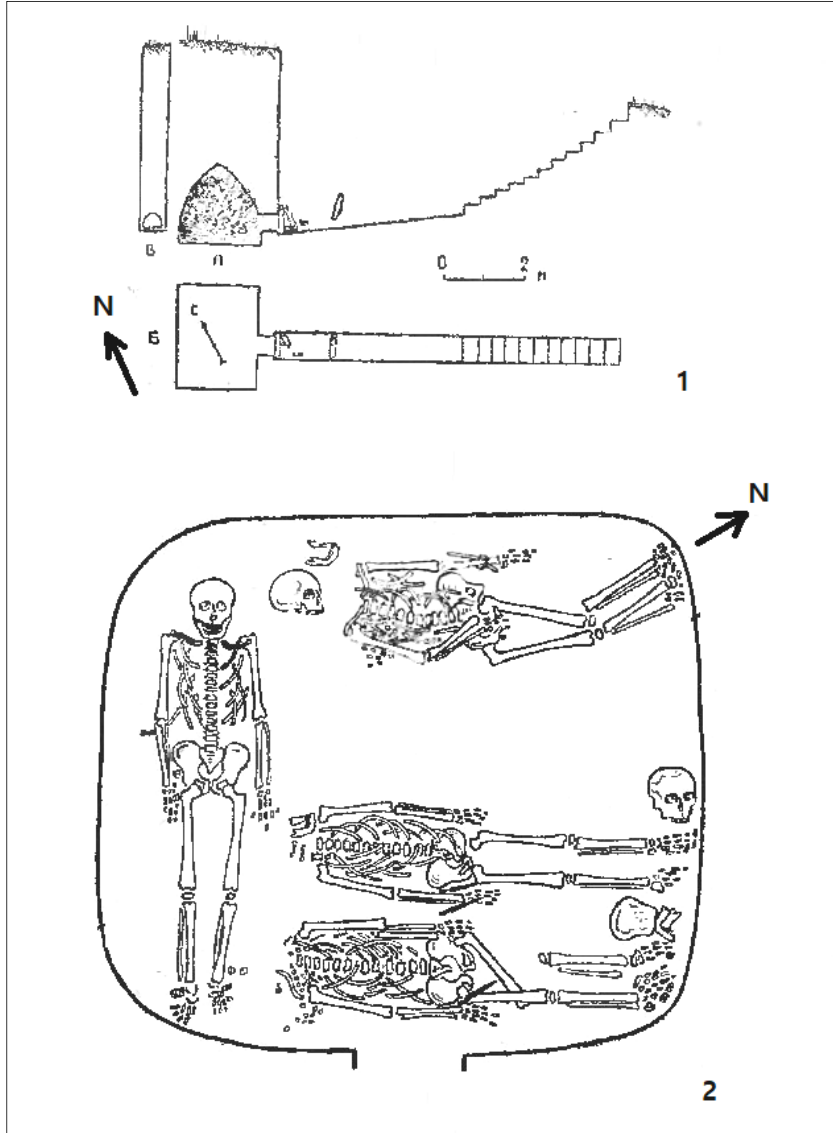
그 첫째가 카타콤형태의 묘제⁸⁾이다(도 2). 카타콤묘는 높은 하안단구에 축

⁶⁾ Артамонов М. И., История хазар, Л., 1962.

Плетнева С. А., От кочевий к городам, М., 1967 (МИА, No 142).

⁷⁾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⁸⁾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С.69-70



도 2. 베르흐니 살토프(Verkhni Saltov) 취락 내 발견 카타콤형 묘제.
 1. 3호묘 (1948년 발굴), 2.16호묘 묘실 내부 (1949년 발굴) (Б. А. Шрамко Древности Северского Донца. Харьков : Изд-во Харьковского ун-та, 1962, Рис.108)

조되는 편으로, 묘실과 묘도, 그리고 입구로 구성된다. 묘실은 평면 타원형을 띠고 주실 바닥은 묘도의 바닥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다. 묘도는 묘실 장벽 가운데 설치되는데,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계단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묘도의 폭은 50cm가량이나, 길이는 일정하지 않은 편이고, 묘도

가 깊수록 묘실은 더 깊은 곳에 설치되고, 묘실 내 부장품이 풍부한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묘실은 지표 2-5m 아래에 설치되는 경향이 있고, 묘도와 연결되는 주실 입구는 나무와 같은 것으로 막아두는 경우가 많다. 묘실 평면 플랜은 대부분 장방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서리부분을 둥글게 한 장방형 또는 타원형, 심지어 원형의 것도 확인되고 있다. 묘실 크기는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장벽이 170-220cm, 단벽이 140-170cm의 길이를 가진다. 묘실의 높이는 발굴시 훼손된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150-160cm는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실에는 적게는 1명, 많게는 10명까지 피장자가 매장되어, 단일묘, 합장묘(남성, 여성), 집단묘(가족묘)의 형태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신전장으로, 여성은 굴장으로 치러졌다. 두향은 주로 서향, 또는 북서향, 남서향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주실 내 토기류가 부장되고, 남성 피장자의 경우 무구류, 과대가, 여성이 피장자일 경우에는 구슬, 소형주술품, 동경 등이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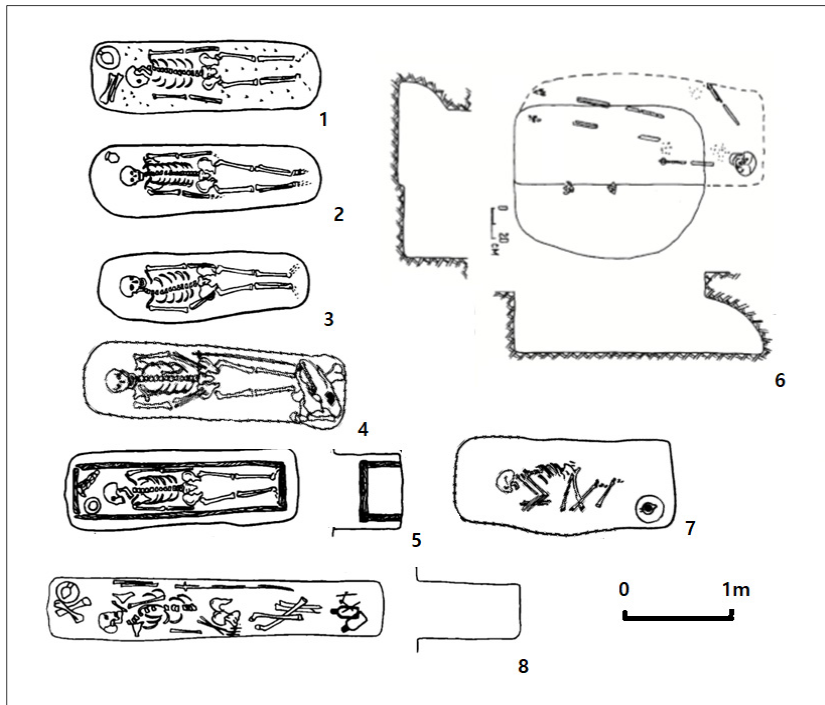
묘도에는 말, 양, 개, 산양뼈가 발견되곤 한다.



도 3. 드미트레예브스키 고분군 카타콤묘(2004.8 발굴조사)

1. 묘도, 2. 묘실 입구(묘도에서 연결되는 부분)가 목재로 덮인 모습,
3. 묘실 입구 목재 제거 후 장면, 4. 묘도 내 피장자가 매장된 모습

두 번째 형식은 봉분이 없는 토광묘⁹⁾이다(도 4). 묘광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깊이는 0.6~1.5m이다. 벽면은 고대 지표면에서 수직선상으로 바로 떨어지거나 또는 중간 정도 깊이에서 단을 형성하고 다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묘광을 수직으로 파고 내려가다가 한쪽 장벽을 더 파서 안으로 약간 들어가는 굴을 만든 후 그 안에 시신을 매장한 형태도 있다.¹⁰⁾ 바닥에 목탄흔이나 갈대흔이 발견되곤 한다. 편의상 토광묘라고 칭하지만 목관이 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목관묘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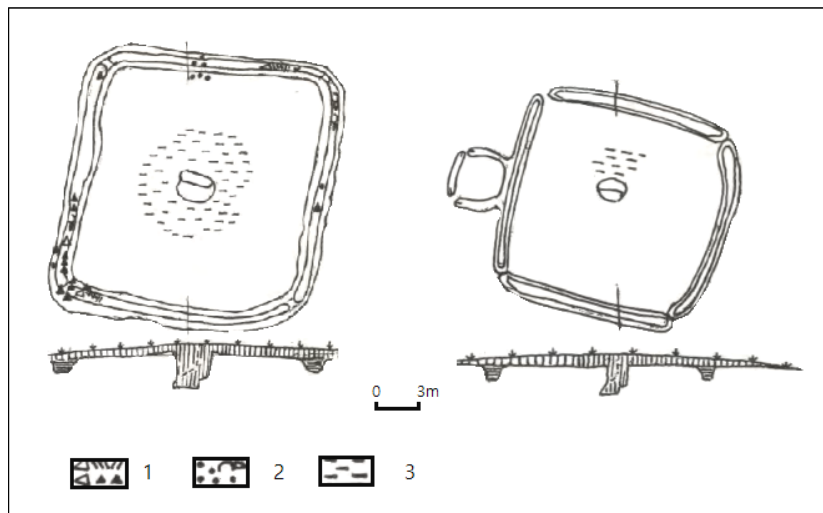
도 4. 봉분 없는 토광묘(목관묘)

피장자의 시신 안치방법은 일정하지 않은 편으로, 전신이 반듯하게 편 신전장과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굽히고 굴장이 혼재하고 있다. 다만 신전장으로 매장된

⁹⁾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С.70

¹⁰⁾ Хоружая М. В., Захоронения в ямах с подбоем Верхне-Салтовского катакомб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1984 - 2012 гг.)// Древности, 2012: Харьковск ий историко-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 X., 2013. - Вып. 12. С.211, 216

인골은 남성으로, 굴장의 인골은 여성으로 판별되고 있다. 대부분 피장자의 머리와 다리 주위에 토기 1~2점이 놓여지고, 그 안에는 동물의 몸통 뼈가 들어있다. 대부분 양의 다리뼈이고, 경우에 따라 소나 말뼈가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동물뼈의 일부분만 출토되는 것이 카타콤묘와의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도 5. 봉분을 가지는 토광묘 : 볼샤야 오를로브카 마을 근교 고분군
1. 말뼈, 2. 양뼈, 3. 점토

세 번째 형식은 봉분을 가지는 토광묘로 소콜로프스키(Sokolovsky) 형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¹¹⁾ 봉분의 직경은 약 18~22m가량이다. 봉토 중앙에 가까운 부분에 매장주체부가 설치되고, 일반적으로 매장주체부 주변에 점토가 덮여진 양상이 관찰된다. 봉토 내 방형 또는 원형의 호가 돌아간다. 호의 형태는 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정방형의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각 변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휘어진 형태를 하기도 한다. 호가 모두 이어져 하나의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1~3개로 끊어진 경우가 많다. 호 안에서 주로 동물뼈가 출토되는데, 양

11)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С.71
Плетнева С.А. Очерки хазар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М. 1999. С.122-125
Мопшкова М.Г., Максименко В.Е., Работы Багаев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1971г.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ижнего Подонья, М. С.45-48
Княшко А.В. и др. Археология Нижнего Дона, 2013, Ростов н/Д, С.25
Матюхин А.Д., Ляхов С.В., Курган хазар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Северной Калмыкии //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Саратовского края, Вып.10, Саратов, 2012. С. 127-140

이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봉분을 가지는 묘제의 피장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묘제는 화장묘¹²⁾로, 시신을 화장하여 바로 땅에 묻거나 토기 속에 넣어 옹관묘의 형태로 매장하기도 한다. 이 때 토광은 매우 얇게 파는데, 두개골은 토광의 서쪽 끝에, 다리부분은 동쪽에 놓이는 경향을 가진다. 피장자가 매장되는 공간 옆에 별도의 수혈이 설치되어 그 내부에 마구류, 무기류, 장신구가 부장되기도 한다. 화장묘는 돈강 유역 하자르시기에는 아주 드물게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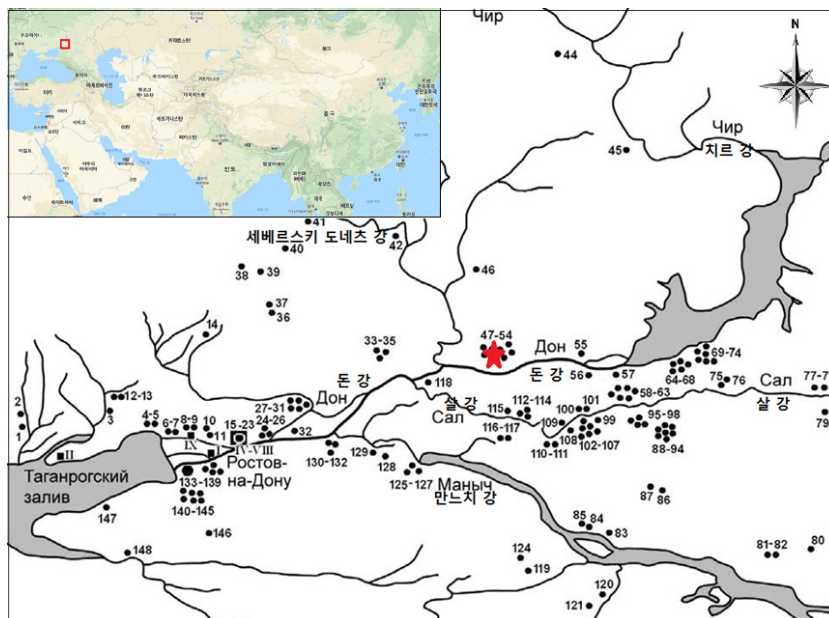
이렇듯 하자르 묘제는 일관된 특징이 보이지 않고 다양한 성향을 띤다. 이것은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하기보다, 분묘축조 입지, 규모와 구조(단순한지 복잡한지), 그리고 부장품의 종류와 다양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층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복잡하고 규모가 큰 분묘, 예를 들면 카타콤형 분묘나 봉분을 가지는 고분의 경우 부장품이 다양하고 그 수량이 많은 편이며, 동물뼈의 경우에도 일부분이 아닌 전체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므로, 봉분이 없는 토광묘(또는 목관묘)와 화장묘보다 높은 계층의 피장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Ⅲ. 유적 및 유물 설명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유물과 유적은 신라금관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형입식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하자르 골제함과의 출토유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지리적으로나 시기적인 접점에 대해 고찰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여, 본고에서는 출자형 모티프라는 요소를 가지는 비교가능한 유사사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로스토프 카스트르스키 고분군 출토유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출자형, 조형문양이 새겨진 골제함과 그 출토유적은 러시아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고,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아, 자료가 가지는 가치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자료와 유적을 검토하여, 출자형 모티브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 전통이 계승되는 지역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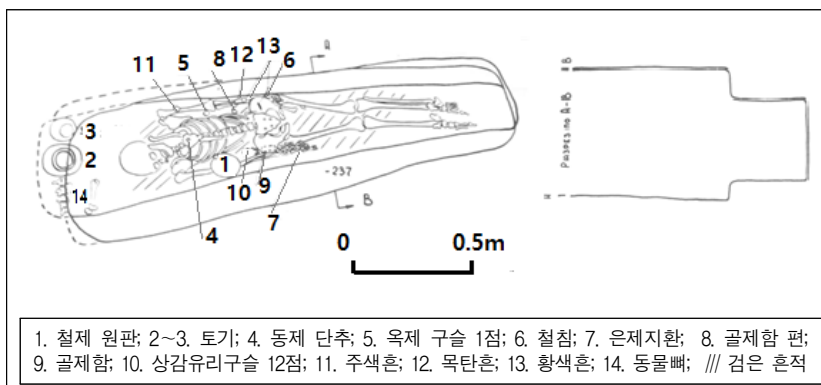
¹²⁾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С.72

Артамонов М. И., История хазар, Л., 1962; Плетнева С. А., От кочевий к городам, М., 1967 (МИА, No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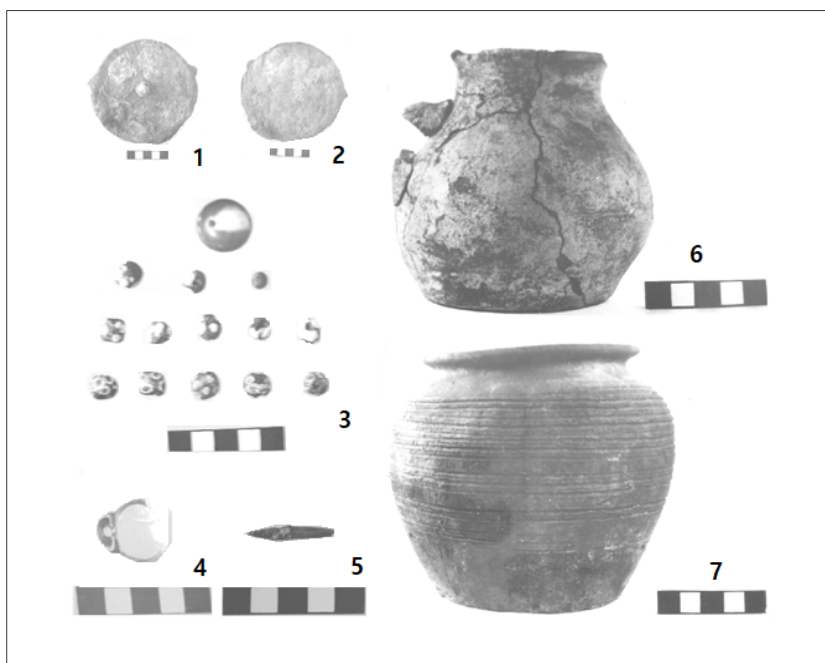
도 7. 카스트르스키 고분군의 위치

1984년 러시아 로스토프 주(Rostov state) 콘스탄티노프스키 군(Konstantinovskiy District) 카스트르스키 촌(Kastyrskiy Village) 근처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트니코프(Zhitnikov V.G.)를 단장으로 구제발굴이 실시되었다. 이 지역은 돈(Don)강 우측의 주요 지류인 세베르스키 도네츠(Severskiy Donets)강이 돈(Don)강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도 7).



도 8. 카스트르스키 VI 고분군 2호분 6호묘

카스트르스키(Kastyrsky) 제 VI 고분군 제 2호분 내에 하자르 시기로 편년되는 매장유구 한 기(6호묘)가 있다(도 8).¹³⁾ 이 매장유구는 주묘 아닌 부묘(附墓)로 묘제는 토광묘(목관묘?)이다. 유구벽은 지표에서 묘광바닥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중간부분에서 단을 형성하면서 내려간 형태를 가지는, 앞서 기술하였던 하자르 묘제 2형식에 속한다. 유구 내에는 18~20세로 추정되는 여성 1개체가 두향을 남서쪽으로 한 채 놓여 있다. 피장자가 놓여 있는 바닥은 전체적으로 검은 흔적이 남아 있어 목제관 또는 천과 같은 유기질로 피장자가 안치될 곳을 마련한 후 시신을 매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 9. 카스트르스키 제 6호 고분군, 2호 고분 6호묘 출토품
 1~2. 철제원판(배면, 전면); 3. 목제 구슬 및 상감유리구슬;
 4.은제지환; 5.철침; 6~7. 토기

이 문화의 전형적인 부장품인 토기, 장식소형호, 철제판(거울?), 은제지환과 함께 골반 근처에 골제소형함(函)이 발견되었다. 토기 2점은 피장자의 머리 위 단벽에 붙어 출토되고 그 옆에 동물뼈가 함께 발견되었다. 어느 동물의 뼈인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으나, 하자르 고분에서 피장자와 가까운 위치, 즉 묘광

13) Житников 1985, с. 41-45

내 음료나 죽(또는 걸쭉한 밥?)과 같은 유동성 음식)을 넣어두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토기(특히 호) 옆에 주로 양뼈가 놓여있다는 점¹⁴⁾을 감안하면, 제 6 카스트르스키 고분군 2호분 6호묘 출토 동물뼈는 양뼈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말뼈나 소뼈가 분묘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해당 유구가 주묘가 아닌 부묘라는 점, 그 규모나 구조가 평이하다는 점, 또한 당시 양이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주요하고 흔한 가축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출토된 동물뼈가 다른 동물의 뼈라고 추정하기보다 양뼈로 보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피장자의 두부에 위치한 토기와 왼손 근처에서 나온 은제지환, 가슴부분에서 발견된 동체단추를 제외한 유물은 모두 피장자의 허리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피장자의 오른쪽에 철제원판, 골제함, 상감유리구슬 12점이, 왼쪽에 옥제구슬 1점과 골제함편, 철침이 위치하는데, 왼쪽의 골제함편과 옥제구슬 1점은 원래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골제함이 파손되면서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여러 점의 구슬은 피장자의 경부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 경식으로 추정하지만, 이 유구에서 출토된 원형상감구슬 12점은 대퇴부 근처에서 골제함과 함께 발견되었다. 출토상태를 살펴봤을 때 원형상감구슬은 골제함 안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골제함이 파손되면서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이 지역에서 구슬이 함 내부에서 출토된 사례는 이 유구가 유일하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함 내부에 보관된 구슬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다른 용도 또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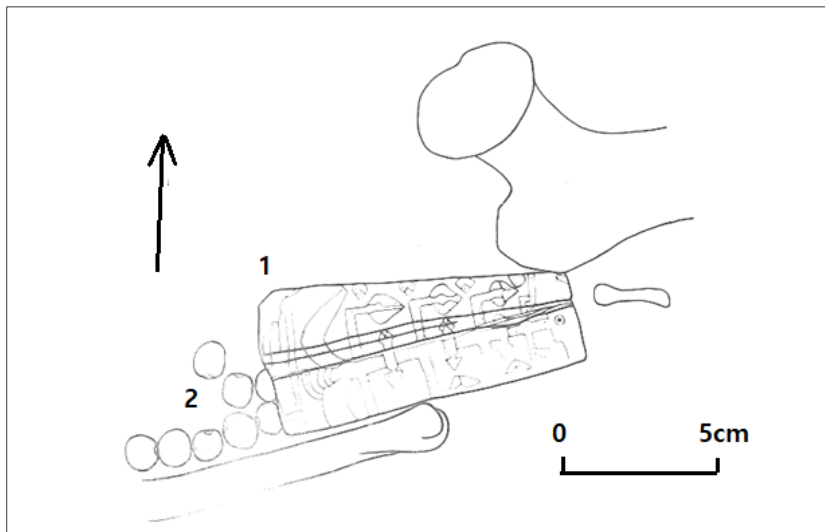
함께 출토된 철제원판은 직경 약 13cm에 양면¹⁵⁾은 동일하지 않고, 철이 부식된 탓에 매끄럽지 못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원판의 문양 유무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전면은 편편하고, 배면은 가장자리가 다소 불룩하게 나와 있고, 중앙에 단추모양의 뉴(?)가 붙어 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을 때, 뉴에는 구멍이 나있고, 뉴와 가장자리 사이에 문양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거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크기도 거울로 보기에는 무리가 없고, 2-3세기부터 이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한 중앙뉴를 가지는 동경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같다. 더욱이 3~4세기로 편년되는 돈강 유역 바라노브카(Boronovka) 유

14) Плетнева С.А. Очерки хазар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М. 1999. С.208

15) 원판의 양면이 동일하지 않아 구분시킬 필요가 있어, 앞-뒷면으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스텝지역에서 출토되는 중앙뉴가 있고 문양이 있는 거울(동경 등)에서 중앙뉴가 있는 면을 배면이라고 하고, 무문의 매끈한 면을 전면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착안하여, 원판 중앙에 단추모양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는 면을 앞면(전면), 매끈한 면을 뒷면(배면)이라고 하고자 한다.

적 출토유물¹⁶⁾인 불룩 튀어나온 연부와 중앙 뉴를 가지는 무문의 동경과 유사점이 보이는 것 같다. 어쩌면 이 철제원판은 과거 2~4세기 이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동경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8~9세기에 특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하자르 분묘 조사자도 유구 조성시기를 8~9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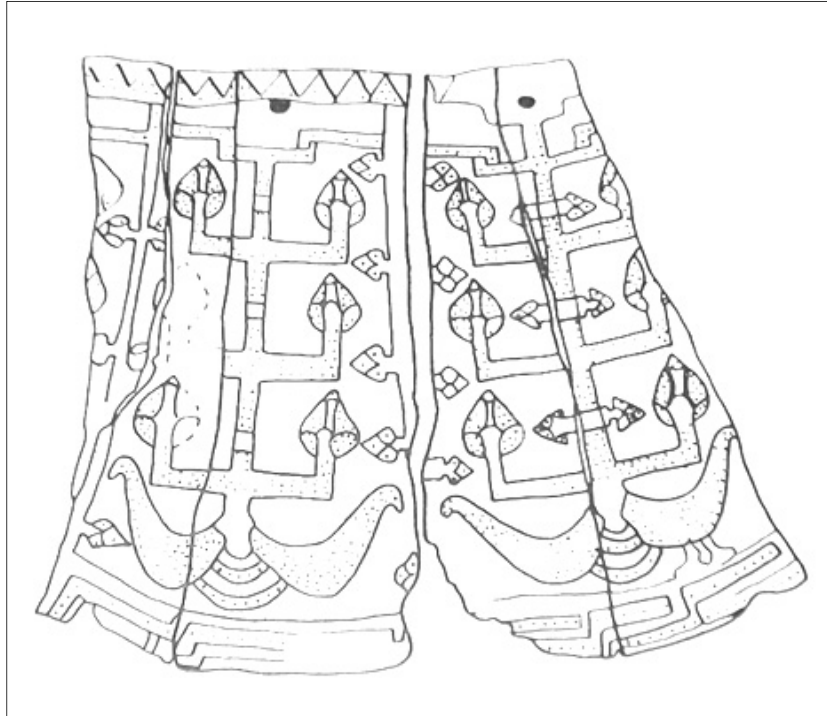


도 10. 골제함 출토상황
1. 골제함; 2. 상감유리구슬

이 골제함은 길이 36cm, 하단부 폭 3.1~5.7cm, 상단부 폭 2.1~3.1cm으로 동물의 사지골로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어떤 동물의 뼈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함의 크기로 보아 말이나 소와 같은 대형가축의 뼈가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닥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 옆에는 원형상감유리구슬 12점이 놓여있는데, 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라는 점을 미루어 보면, 상감유리구슬이 함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6) Кривошеев М.В. Комплексы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могильника Старица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Вып.4, Ростов н/Д, 2005, С.65
이지은,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출토 漢式 사르마트鏡』, 『文物研究』18, 2010, 1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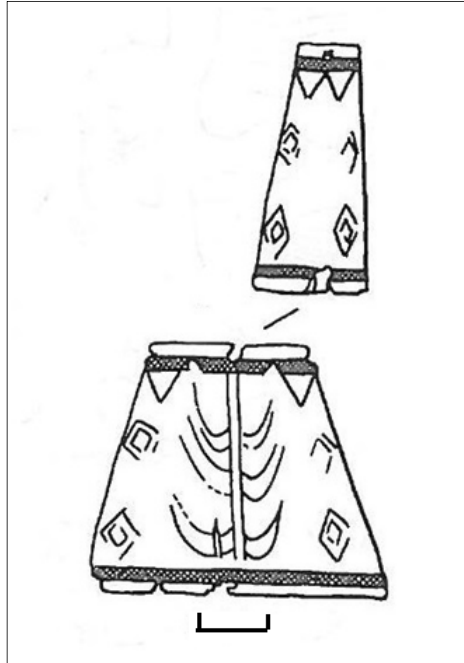
도 11. 골제함 문양

출토된 함 표면 전체는 좌우대칭의 3단으로 구성된 출자형 문양이 중심이 된다. 출자 문양의 각각의 끝부분은 윗부분이 뾰족한 보주형으로 마감되어 있다. 이 형태는 나무 기둥과 기하학적으로 뻗어 있는 세 개의 나뭇가지, 그리고 앞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고(도 10, 11), 나무 기둥형상 아랫부분에는 정형화된 새 2마리가 좌우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정형화된 나무와 새로 이루어진 나무가 문양의 중심 주제가 되고, 그 위아래로, 즉 함 하단부에는 꺾쇠모양의 문양대가, 상단부에는 삼각문양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지하와 지상,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 관념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수 형상이 표현된 골제함과 장신구가 아닌 다수의 상감유리구슬, 그리고 용도미상의 철제원판이라는 흔하지 않은 유물, 그리고 그 생소한 조합은 이 분묘의 여성피장자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 존재, 또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존재가 아니었는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카스트르이스키 고분군 출토 골제함의 문양과 유사하면서, 시기적으로나 문화적 전통차원에서 유사한 유물로 하자르 취락 가운데 하나인 마야츠크(Mayatck)

취락 인근 분묘 출토유물을 들 수 있다.¹⁷⁾ 이 유물은 일종의 껍으로, 카스트르이스키 고분군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무엇을 넣고 보관하는 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재질은 사슴(?)의 뿔이다. 이 출토품 표면 상·하단부 잔잔한 격자문대가 돌아가고 있고, 중간의 넓은 부분에는 중심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상하 문양대를 연결하는 수직의 중심축과 그 중심축을 사이에 두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ㄴ자 형태의 가지가 서로 마주보면서 3단의 가지가 표현되어 있다. 중심 문양 주위의 빈공간에는 마름모 형태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이 역시 나무를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뭇가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 사슴뿔에 나무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재료와 문양을 선별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이 역시 3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 관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 12. 마야츠크 출토 골각제 함

IV. 세계수 관념

출토품에 표현된 세계수 관념은 세계 중심관념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신성화된 우주에 살았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공간에는 성스러운 의례에 따라 탄생한 질서가 필요했다. 공간에서의 방향은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조건이다. 성스러운 장소, 특히 세계의 중심은 의식(意識, Consciousne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성스러운 장소 없이는 세상의 방향도, 다양한 형태의 성공적인 행위도 있을 수 없다. 전통적인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의 성스러운 공간과 실제

17) Флерова 2013, таб. X, с. 62, 122

공간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성스러운 장소는 의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창조라는 행위가 우주의 출발점이 되었고, 창조 과정에서 이 세상은 탄생하였다(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의 시작). 이 창조행위는 의례를 통해서 공동체사회에서 규칙적으로 재현되었다. 우주와 연관된 인간 공동체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고대의 의식(意識)은 자연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분리시키지 못했고, 우주의 존재는 인간의 정기적인 노력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A.V. 포도시노프(A. V. Podocinov)가 “고대 문화에서 세계 그림에서의 자기중심주의는 본질, 시작, 기본 원칙, 모든 방향으로의 출발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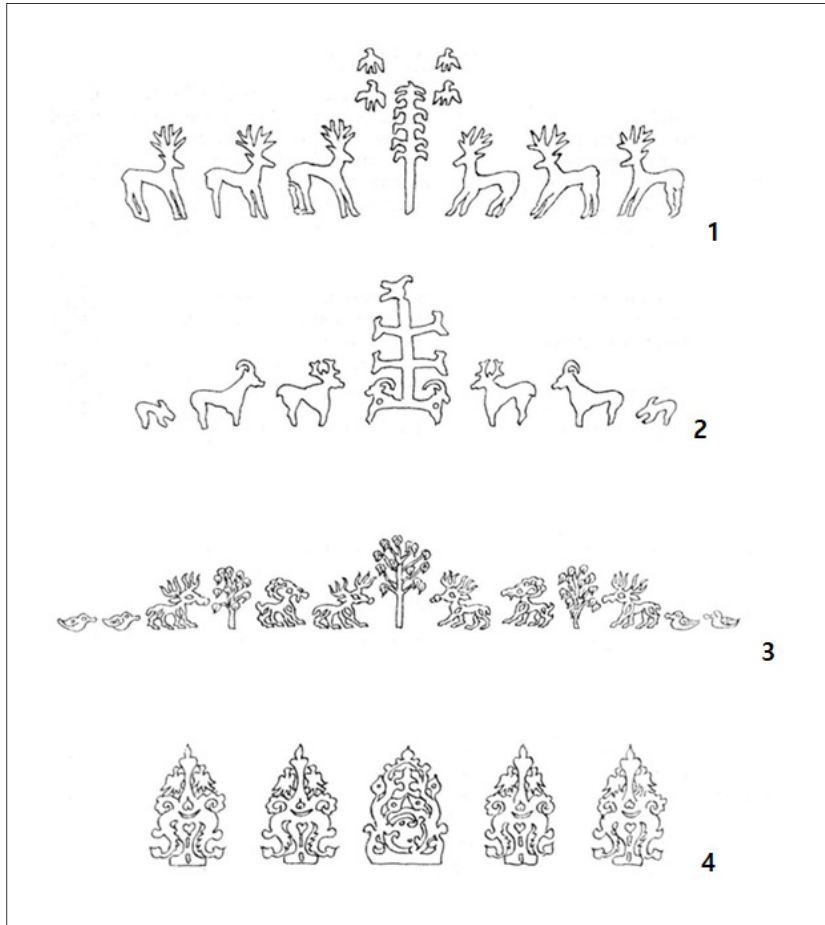
여러 고대 문화에서 공간에 대한 관념은 유사한 형태로 표현된다. 공동체 의식(意識)에서 성스러운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것은 제대, 의례공간, 사원, 세계수 또는 세계산(山)을 의미하였다. 중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집안의 아궁이와 같은 개별속성을 가진 것이나, 특정 인물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부족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세계수(또는 세계산)은 우주의 중심이고, 수직적 구성을 형성하는데, 하부세계는 지하, 중간세계인 지상, 상부세계인 천상을 형성한다. 세계수는 지하-지상-천상이 만나는 곳이다. 세 개로 분할된 우주는 세계의 어느 부분에서 반복된다.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 집도 동일한 세계관과 그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大우주(세계)와 유사하다.

함 표면에 세계수와 대칭되는 새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세계수는 함 양쪽에 모두 표현되어 있다. 새는 상당히 도식화되어 있고, 4 마리 중 한 마리에만 다리가 표시되어 있다. 함 양쪽에 표현되어 있는 전체 그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반영한다. 상부세계는 상단의 삼각형으로 표현되고, 하단의 꺾쇠모양은 하부세계 공간을 표시한다.

중간세계가 문양의 주된 부분이다. 세계수가 세 개의 세계를 모두 연결하고 있는 모습은 나무기둥에서 잘 보이는데, 특히 나무기둥의 상단부가 상부세계로 열려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세계수에 특징 중 하나가 중간세계를 표시하는 사슴 또는 새의 형상이고, 지속적으로 세계수의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특별하게 대칭되는 형상이 표현된 골제품이 여성묘에서 출토된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액막이나 부적과 같은 주술용품이 고대, 중세 여성묘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과 연관된다.

18) Подосинов, 1999, с. 266



도 13. 세계수 형상

1. 코바코보 고분군 출토유물(금박, 모자장식); 2. 우스트-라빈스키 46호분 출토유물(금박, 모자장식), 3. 호홀라치 출토유물(금제, 관부속구), 4. 킬라 테페 출토유물(금제 관장식)

세계수와 여성이 연결되는 양상은 본고에서 살펴보았던 카스트르이스키 고분군이 위치하는 러시아 남부 스텝지역에 위치한 기원전 1 ~ 기원후 3세기로 편년되는 코바코보(Kobyakovo)고분군 제 10호분, 우스트-라빈스카야(Ust-Labinskaya) 46호분, 그리고 가장 호화롭기로 유명한 사르마트 고분인 호홀라츠(Hohlach)고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도 13, 1~3). 이 세 유적은 공통적으로 여성이 피장자이고, 금 또는 금박으로 된 모자 또는 관장식이 발견되었다. 장식문양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나무형상과 그것을 중심으로 대칭되게 배치된 사슴과 산양의 문양이다. 기원전후 시기로 편년되어 상기한 세 유적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호홀라치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제 관장식은 나무와 나뭇잎, 그리고 사슴과 산양, 새의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 하차르시기 매장유구 출토유물에 보이는 세계수 형상에 관한 검토 19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구성에서 나무 - 뿔이 달린 짐승(사슴, 산양) - 새라는 세계수 관념과 관련되는 모든 요소가 구비되어 있다. 반면 조금 더 늦은 시기인 기원후 2 ~ 3세기로 편년되는 코바코보 고분군 출토유물과 우스트-라빈스키 고분군 출토유물은 비교적 단순하게 도식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나무는 중간 나무기둥을 중심으로 좌우로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나뭇가지가 대칭되게 배치되고 있다. 우스트-라빈스키 고분군 출토유물에서 뿔이 달린 짐승으로 사슴과 산양(그리고 명확하게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소형동물)이 모두 표현되어 있는 반면, 코바코보 고분군 출토유물에서는 사슴만 나타나고 있고, 대신 나무 주위로 새 2쌍이 배치되어 있다. 우스트-라빈스키 46호분의 세계수형상에서 나무 하단부에 대칭되게 머리를 밖으로 향하는 동물의 형상(산양)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머리를 밖으로 한 새의 형상이 나무 하단부에 배치되고 카스트르이스키 고분 출토 골제함에 새겨진 나무형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두 유물 모두 나무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출자형을 띠는 점, 그리고 새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틸라 테페(Tilya Tepe) 출토품(도 13, 4)도 비교할 만하다. 세계수를 중간에 두고 대칭되게 배열된 산양, 사슴, 새의 형상은 매우 전형적이다. 이런 요소가 신성한 지위, 즉,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나타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이러한 요소와 구조가 생의 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관념을 상징하고,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족의 세계관과 연결되어¹⁹⁾ 세계수 관념과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수와 여성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로 알타이의 파지릭(Pazyryk) 문화를 들 수 있다. 파지릭 제 5호분에서 출토된 양탄자(도 14)가 그것이다. 여신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자 다리에서부터 자라난 것처럼 보이는 꽃이 맺힌 생명수 나뭇가지를 잡고 있다. 나무줄기는 곡선형을 이루면서 10개의 다양한 꽃으로 끝이 마무리된다.²⁰⁾ 좌측 하단의 가지는 도식화된 동물의 뿔 형상을 띠고 있고, 마치 이것에서부터 다른 나뭇가지들이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19) Гугуев, 1992

20) Баркова 1998, с. 140-141



도 14. 파지릭고분군 제 5호분 출토 양탄자 문양

쿠반강 유역 기원전 4-3세기 메르드즈단(Mergzhdan) 출토된 의례장면이 표현된 각배편은 왕좌에 앉아 있는 여신과 그 앞에서 있는 기마병, 그리고 여신 옆의 세계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도 15).



도 15. 메르드즈단(Mergzhdan) 출토 각배편

기본적으로 세계수는 천상-지상-지하라고 하는 세 개의 세계를 연결하여 수직적 세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세계수를 왕 또는 지배자와 연관시키면, 세계수는 세계의 중심이자 지배자의 상징으로, 우주와 사회적 공간의 통치자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세계수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으로 연결과 소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스텝지역에서는 최소한 기원전 1세기 경에는 이런 세계수 관념이 존재하였고, 그 전통은 중간에 소멸되지 않고 중세시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 하자르시기 매장유구 출토유물에 보이는 세계수 형상에 관한 검토 21

V. 맺음말

본고에서는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 스텝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카스트르스키(Kastyrsky) 제 VI 고분군 제 2호분 출토유물에 새겨진 세계수 형상을 살펴보면, 해당 유구가 속하는 8~9세기 하자르문화의 묘제를 소개하였다. 카스트르스키(Kastyrsky) 제 VI 고분군 제 2호분 출토유물 골제함의 출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수 형상은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그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나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사슴(또는 산양)-새가 조합을 이루는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하-지상-천상 세계를 연결하고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세계수 형상과 관련된 유적의 피장자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적 의미를 가지면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카스트르이스키 고분군 출토유물을 통해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확연하게 보이던 세계수 관념과 전통이 8~9세기에 이르는 시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료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중간 공백기로 남아있는 러시아 유럽지구 남부스텝지역의 기원후 4~9세기 세계수 관념을 메울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향후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세계수 관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을 위하여 미발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러시아 남부연방대 재직 중인 지트니코프 빅토르 G.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투고일 2018년 1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8일 ■

참고문헌

- Артамонов М. И., История хазар, Л., 1962. (아르타모노프 M.I. 하자르 역사. 레닌그라드, 1962)
-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1981. М. (소련 고고학 : 중세 유라시아 스텝지역, 1981, 모스크바)
- Баркова Л.Л. Большой войлочный ковер из Пятого Пазырыкского кургана. //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Пб. 1998. (바르코바 L.L. 『파즈릭 제 5호분 출토 대형 양탄자』, 『중앙아시아 고대문화』, 상트 페테르부르크, 1998)
- Гугуев В.К. Кобыковский курган. (К вопросу о восточных влияниях на культуру сарматов I в. н.э. - начала II в. н.э.) // Вестник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1992. №4. (구구예프 V.K. 『코바코보 고분 (기원후 1세기 - 2세기 초 사르마트 문화로의 동양의 영향에 대한 의문)』, 『고대사학보』, 1992-4)
- Житников В.Г. Отчет о работе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го отряда Ростов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 зон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онстантиновской оросительной системы в 1984 г. Ростов-на-Дону, 1985. (지트니코프 V.G. 『1984년 콘스탄티노프 관개수로 공사구역 로스토프국립대학 콘스탄티노프 조사단 작업에 관한 보고서』, 로스토프, 1985)
- Забияко А.П. Наскаль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Китая Благовещенск, 2015 (자비아코 A.P., 『중국 북동부 암각화 형상』, 블라고베셴스크, 2015)
- Засецкая И.П. Сокровища кургана Хохлач. Новочеркасский клад. СПб.: Изд-во Гос. Эрмитажа, 2011. (자세츠키야 I.P. 『호홀라치 고분의 보물』, 『노보체르카스키 유물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에르미타주출판사, 2011)
- Ионова Ю.В. Шаманство в Корее (XIX - начало XX в.) // Символика культов и ритуалов народов зарубежной Азии. М., 1980. (이오노바 Yu.V., 『한국의 샤머니즘 (19~20세기 초)』, 『아시아 외국민족의 제사와 의례의 상징』, 모스크바, 1980)
- Кияшко А.В. и др. Археология Нижнего Дона, 2013, Ростов (키야슈코

- A.V. 외, 『돈강하류역의 고고학』, 2013, 로스토프)
- Кривошеев М.В. Комплексы позднесарматского времени могильника Старица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записки. Вып.4, Ростов н/Д, 2005. (크리보쇼프 M.V. 『스트라차 고분 출토 후기 사르마트시기 유적』, 『고고학보』4, 로스토프, 2005)
- Матюхин А.Д., Ляхов С.В., Курган хазар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Северной Кальмькии //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Саратовского края, Вып.10, Саратов, 2012. (마튜힌 A.D., 라호프 S.V. 『칼므익키야 동부 하자르시기의 고분』, 『사라토프지역 고고학적 유산』10, 사라토프, 2012)
- Мошкова М.Г., Максименко В.Е., Работы Багаев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в 1971 г. //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ижнего Подонья, М. 1972. (모쉬코바 M.G., 막시멘코 V.Ye., 『1971년 바가예프 조사단 작업』, 『돈강하류역의 고고유적』, 모스크바, 1972)
- Плетнева С. А., От кочевий к городам, М., 1967. (플레트네바 S.A. 『유목에서 도시로』, 모스크바, 1967)
- Плетнева С.А. Очерки хазар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М. 1999. (플레트네바 S.A. 『하자르 고고학 개론』, 모스크바, 1999)
- Федоров-Давыдов Г.А. Погребения хазарского времени из урочища Кривая Лука в Нижнем Дону //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степей Евразии. Кемерово, 1984. (표도로프-다브도프 G.A. 『돈강하류 크리마야 루카 경계로부터 발견된 하자르시기 분묘』, 『유라시아 스텝 고고학의 문제』, 케메로보, 1984)
- Флерова В.Е. Граффити Хазарии. М., 2013. (플로로바 V.Ye., 『하자리아의 낙서』, 모스크바, 2013)
- Шрамко Б. А., Древности Северского Донца. Харьков : Изд-во Харьковского ун-та, 1962. (슈람코 B.A. 『세베르스키 도네츠크우역의 고대』, 하리코프, 하리코프대학교출판사, 1962)
- Цуциев А. Богиня на троне и всадник. К вопросу о семантике сцены на вой локе из 5-го пазьрыкского кургана // Родина. 2013. № 2. (추치예프 A. 『왕좌 위 여신과 기마병: 파지릭 고분군 제5호분 출토 양탄자 장면의 의미』, 『조국』2, 2013)
- Хоружая М. В., Захоронения в ямах с подбоем Верхне-Салтовского ката

комбного могильни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скопок 1984 - 2012 г
г.)// Древности, 2013. – Вып. 12. (호루자야 M.V. 『베르흐니 살토프
카타곰 고분군 측면감실을 가지는 토광묘』, 『고대』12, 2013)

Li Ogg. An aureole of legend on a golden crown // The UNESCO courier.
December 1978.

Abstract

A Study on World tree ornament from the Khazar burial of the Eurasian steppe in the European part of Russia

Lee, Ji Eun · Vdovchenkov Evgeny

It is known that the idea of the World tree is distributed in the Eurasian steppe including Korea. From the burial No.2 of the 6th Kastyrysky barrows were found the bone case with the simple geometric patten of tree. On the bone case it was engraved the schematized trees and birds, and the trees are connected to the upper and lower pattern tape. So it can be assumed that it is related to the idea of the World tree which connects the three worlds : heaven-ground-underground. Because it was found the women skeleton with the bone case, eye beads and iron disk, so it maybe possible to suppose that person buried in this grave might be symbolic meaning and religious role. Due to there are some archaeological cases of evidence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world tree and female, it was allowed to guess the idea of the World tree appeared not late than 1st century BC and the related tradition to the World tree was continued until 9th century AD by maternal lineage in this area.

Key Words : Eurasian steppe in the European part of Russia, Khazar burial, Kastyrysky barrow, Kobyakobo barrow, Khohlach barrow, Ust-Labinsk barrow, World tree, deer shaped ornament, mountain goat ornament, bird ornament, ritual, symbol